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사’ 연구와 새로운 역사상의 모색*

— 근대중심주의(moderno-centrism) 비판과 트랜스히스토리칼(trans-historical)한 접근

裴亢燮**

I. 머리말	III. HK사업과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사 추구(2007~2020)
II. 개원과 동아시아사 연구의 방향 모색(2000~2007)	IV. 맺음말: HK+사업과 그 이후-새로운 도전들

• 국문초록

이 글은 2000년 3월 창립된 이후 동아시아학술원이 수행해온 연구 활동이나 연구 성과를 연구 분야 면에서는 동아시아사 혹은 동아시아라는 맥락 속의 한국사 연구, 연구 대상 시기 면에서는 ‘근대전환기’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특히 이글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해 ‘동아시아사’를 둘러싼 개념이나 접근방식, 그리고 그것이 변화해나가는 과정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동아시아사’가 처음에는 일종의 ‘지역사’라는 의미에서 접근되었지만, 점차 하나의 방법적 개념으로 변화해나갔음을 확인하였다. HK사업이 시작될 무렵 서양중심적(eurocentric) 역사에 대한 비판적 이해에 근거하여 새로운 역사상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가시적으로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23515).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교수

나타났다. 2010년대에는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modernocentrism) 를 동시에 극복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문제의식이 제기되었고, 그를 위해 트랜스히스토리칼(transhistorical)한 접근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사, 19세기의 동아시아, 근대중심주의, 트랜스히스토리칼

I. 머리말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이하 “학술원”)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그 역사와 문화, 사회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20년 전인 2000년도에 개원하였다.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인문학자들에 의해 발신되기 시작하던 때였다. 개원 목적은 일국적 테두리를 벗어나 동아시아 차원의 역사와 문화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인문·사회과학을 포괄하는 연구를 통해 세계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이론과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 이후 학술원은 동아시아 연구의 심화와 새로운 시각 및 방법의 모색을 위해 국내 학계와는 물론, 미국과 유럽, 중국과 일본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 및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활발하게 교류하며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다.

2000년 개원 기념으로 ‘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지향’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래 많은 학술대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고, 연구 활동의 성과들을 단행본으로 출간하여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내학계의 연구를 선도해왔다. 2007년에는 ‘동아시아학을 통한 한국인문학의 창신’이라는 어젠다(agenda)를 내걸고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 연구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이후 10년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해 나갈 수 있었다. 2018년에는 인문한국플러스(HK+, 제2유형) 연구기관으로 재차 선정되었다. HK+ 사업의 취지대로라면 인문한국 사업 기간 10년 동안 축적해온 연구 성과의 폭과 깊이를 더해나가야 하고, 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나가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학내외적 환경이나 조건이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최근 들어 인간의 삶과 인문학 연구의 기초를 이루는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의 만연과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생명공학(biotechnology)은 인간 삶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이전의 인문학적 사유에 대한 근본적 재인식이 요청되고 있다. 근대중심적 인식을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생물권, 사물의 의회, 그리고 인간-자연의 관계도 인간중심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해야 한다거나, 인간-사물이 결합된 덩어리가 민주주의의 기본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학술원 20년의 발자취

를 돌아보는 것은 ‘동아시아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인문학을 추구하며 한국인문학 연구에 유의미한 족적을 남긴 학술원의 연구 방향만이 아니라, 한국 인문학, 나아가 동아시아와 세계 인문학의 미래를 다시금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 글에서는 2000년 3월 창립 이후 동아시아학술원이 수행해온 연구 활동이나 연구 성과 가운데 주로 ‘근대전환기’를 중심으로, 또 동아시아사 연구 혹은 동아시아라는 맥락 속의 한국사연구라고 할 만한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 먼저 학술원 20년을 크게 두 시기, 곧 창립과 기반 확충기(2000~2007)와 HK사업 시기(2007.11~현재)로 나누고 각 시기의 연구 활동과 성과를 학술회의와 단행본을 통해 검토해볼 것이다. HK사업은 2017년 8월에 종결되었고, 2018년 3월부터는 HK+(HK플러스)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HK사업의 연장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살펴봐도 무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맺음말에서는 이후 학술원의 연구 방향이나 전망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개원과 동아시아사 연구의 방향 모색(2000~2007)

1. 연구활동

학술원의 학문적 지향은 개원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²⁾ 보고된 김시업(당시 대동문화연구원장)의 <개원보고>에 잘 정리되어 있다.³⁾ 그에 따르면 학술원은 성균관대학의 건학이념이기도 한 유학사상과 동양학에 중점을 두고 한국과 동양의 문화를 연구해온 대동문화연구원(1957년 창립)을 모태로 설립되었다. 또한 학술원의 목표와 방

1) 이와 시기나 분야를 달리하는 학술원의 연구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는 각기 김경호(간독 자료를 비롯한 동아시아 자료학과 호적을 중심으로 한 역사인구학), 이해령(현대문학), 이영호(유학사상)의 글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들에서도 근대전환기의 동아시아사 내지 동아시아 속의 한국사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연구 성과나 활동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복되는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해둔다.

2) 이 학술회의에서는 21편의 글이 발표되었고 그 가운데 16편의 글이 5년 뒤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김시업·마인섭 편, 『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지향』,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3) 개원 과정과 그 전말에 대해서는 오시택, 「새로운 학술시스템을 지향하는 동아시아학술원 20년」, 『대동문화연구』 본호 참조.

향을 제시하면서 연구 면에서는 한국학·동아시아학 분야의 집중 연구 및 이론의 개발을 첫 머리에 꼽았다. 이를 위해 일국적 테두리를 벗어나 동아시아 역사·문화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근대 학문의 분류체계를 지양하여 인문·사회과학을 포괄하는 종합적 학문의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여 특색을 갖춘 동양 문화의 재건, 새로운 문명적 전환에 대비하는 사상적 기초의 창출, 이러한 연구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국제적 교류의 활성화가 강조되었다. 개원기념 학술회의의 취지도 “한국의 동아시아학”의 정체성 모색을 위해 세계 각국의 동아시아 연구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전망을 조망함으로써 동아시아 연구의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⁴⁾

학술원이 ‘동아시아’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나 동아시아 연구를 중심적 테마로 잡은 데는 당시 한국 학계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던 ‘동아시아 담론’의 영향이 있었다. 한국에서 ‘동아시아’가 학문적 논의의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부터였다.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소통과 연대, 평화체제의 구축, 한반도 평화 문제 등과 관련된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그를 위한 학술단체 간의 교류, 시민운동 차원의 연대도 시도되어 왔다.⁵⁾ 성균관대학교 내부적으로 볼 때도 동아시아 연구가 갑자기 시작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에 관한 모색은 이미 20여년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동양학 국제학술회의’가 1975년부터 5년에 1회씩 개최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라는 말이 ‘유교문화권’이나 ‘동아’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왔다. 예컨대 ‘동아시아 3국 고전문학의 특징과 교류’(1985), ‘동아시아 3국에서의 실학사상의 전개’(1990), ‘한중일 3국의 경학 발전의 의미와 성격’(1996) 등 국제학술회의 주제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⁶⁾ 또 그것은 1999년 11월 한국연구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청한 BK21 사업단의 명칭이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

4) 김시업, “동아시아학술원의 개원과 그 지향”,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개원 기념 동아시아학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지향-그 사상적 기저(학술회의 발표문)』, 2000년 11월 23~24일, xv~xvi면.

5) 동아시아담론의 형성과 쇠퇴 과정, 그것이 가지는 학술사적 의미 등에 대해서는 윤여일, 『동아시아 담론-1990~2000년대 한국사상계의 한 단면』, 돌베개, 2016 참조.

6) 임경석, 「대동문화연구원의 학술사적 위치」, 『대동문화연구』 6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22면.

단>이라는 데서도 보인다.⁷⁾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이 같이 오래 동안 축적되어 왔으며, 동아시아학술원이라는 명칭은 그 흐름을 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술원 개원 전후 한국학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동아시아론에 대해서는 비판적 논의들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동아시아론은 다양한 갈래가 있지만, 그것이 지적실험 내지 새로운 상상으로서 가지는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국민국가가 상존하는 현실에 대한 긴장감이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⁸⁾ 또 ‘동아시아론’이 한국·한반도의 중심성을 은연중에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동아시아 권역 내의 다른 국가들에도 수용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비대칭적 역학관계 등의 ‘현실’을 충실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⁹⁾

‘동아시아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동아시아론’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동아시아 담론의 유행과 함께 명칭에 ‘동아시아’가 들어가는 연구기관들도 많아졌고, ‘동아시아’를 주제나 키워드로 논저들도 많이 제출되었다. ‘동아시아’는 역사학 분야에서도 매우 큰 관심을 받는 화두가 되었다. 그것은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동아시아사’가 독립된 교과목으로 신설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동아시아 논의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동아시아에 접근하고 동아시아사를 구성하려는 노력 면에서는 매우 미흡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학문적 축적이 불충분하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지만, 동아시아의 역사를 어떻게 접근하고, 그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원 당시와 초기의 학술원에서도 보이는 현상이다. 학술원은 ‘동아시아’ 내지 ‘동아시아학’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동아시아학’의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개원기념 국제학술회의 취지에서도 ‘세계 각 지역의 동아시아 연구’가 언급되고 있으며, 한중일 3국을 유교와 한자를 키워드로 한 유교문화권이라는 맥락에서 동아시아학이 설정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문화권, 특히 서구문화권과 대비하는 속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¹⁰⁾ 지역학

7) 이때 제출된 BK21 지원신청서와 교육·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진재교, 「동아시아학술원의 연구·교육의 통합 모델과 그 성과」, 『대동문화연구』(본호 수록) 참조.

8) 장인성,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동아시아 정체성-“동아시아의 새로운 상상”과 “국제사회로서의 동아시아”」, 『세계정치』 4,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5.

9) 류준필, 「분단체제론과 동아시아론」, 『아세아연구』 52(4),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9.

개념을 강하게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같은 학술회의에서 일본인 중국연구자인 미조구치 유조[溝口雄三]가 논급한 視座의 문제, 곧 “유럽을 기준으로 하는 역사관에서 탈피하여 각각의 역사 문맥에 따라 역사를 재구성”한다는¹¹⁾ 것과 같은 문제의식이 분명히 제시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물론 개원 이후 동아시아를 키워드로 한, 혹은 동아시아를 주제로 한 연구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연구와 관련한 문제의식도 한층 심화되어 갔다. 예컨대 2000년 여름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자원과제에 선정되어 6년간 진행한 <한국사회의 변동과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이라는 연구 프로젝트의 취지는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한국사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탐구하라는 데 있었다. 6년간 크게 3개의 주제를 각기 2년씩 연구하였다, 3개의 주제에 대한 학술회도 매년 개최되었다. 2001년 6월과 2002년 5월에는 <傳統社會의 運營原理와 變動에 대한 對應樣式>, 2003년 4월과 2004년 6월에는 <국제질서의 재편과 근대로의 이행>, 2005년 6월과 2006년 7월에는 <일본제국주의의 평창과 동아시아>라는 주제였다. 이 6년간의 연구는 이후의 연구방향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새로운 동아시아적 패러다임의 모색은 서구 근대학문이 만들어 놓은 학문간의 배타성을 넘어 학제간 상호침투가 기초가 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는 평가가 있다.¹²⁾ 또 ‘근대전환기’ 한국과 동아시아 문학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전근대 내지 전통과 근대의 이분법적 이해를 넘어 전근대-근대가 내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¹³⁾

이외에도 학술원 설립 이후 2007년까지 수행한 다양한 연구들이 기본적으로는 모두 동아시아라는 키워드를 둘러싼 연구 시각이나 방법과 무관한 것일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이 시기 학술원이 수행한 연구들 가운데 동아시아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동연구의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10) 이우성, “동아시아와 한국”, 앞의 2000 학술회의 발표문, 1~4면.

11) 溝口雄三, “동아시아 연구의 시좌에 관한 모색-중국연구를 중심으로”, 앞의 2000 학술회의 발표문, 23~25면.

12) 김건태, 「대동문화연구원의 사학사적 위치」, 『대동문화연구』 6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43~44면.

13) 진재교, 「한국문학 연구와 ‘대동문화연구원’-동아시아학으로의 연구지평 확대와 연구방법론의 창신」, 『대동문화연구』 6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표 1〉 2000~2007년간 동아시아사 관련 주요 공동연구

번호	연구기간	연구 과제
1	2000.09.01 ~ 2006.08.31	세계체제 형성기 한국 전통 사회의 변동에 대한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
2	2002.08.01 ~ 2005.07.31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 3국(중국,일본,러시아)의 한국 인식
3	2004.11.01 ~ 2005.06.30	발해의 영역 확장과 말갈 지배 관련 디지털콘텐츠 개발
4	2005.09.01 ~ 2008.08.31	근대 한러관계 연구
5	2005.12.16 ~ 2006.06.30	기초학문자료센터 설립을 위한 시범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합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동아시아’를 키워드로 혹은 동아시아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일국사적 연구의 시야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이나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었고, 저마다 의미 있는 성과를 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더 깊이 고민되어야 할 과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술원 개원의 목표와 방향 등에서는 “동아시아 역사 문화에 대한 전체적 파악”, “인문·사회과학을 포괄하는 종합적 학문의 수립”, “동아시아 연구의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모색”한다는 점들이 강조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 있지는 않았다. 여전히 만족할 만한 논의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가야 할 문제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들은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동아시아와 관련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는 가운데 새로운 시각과 방법도 한층 구체화되어 갔다.

2. 연구 성과

2000~2007년 동안 이루어진 공동연구의 성과들 중에는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도 적지 않았다. 그 가운데 동아시아사와 관련한 주요 단행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99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1단계 BK21 사업(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의 성과들이다. BK21 사업은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둔 것이지만, 참여 연구진의 연구 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나온 성과를 묶어 연구총서(전 4권)를 출간한 것이다. 총서의 제목은 “동아시아 정체

성을 묻는 오늘의 시각”이다. 역사·정치·사상 그리고 여성이라는 주제로 나누어 동아시아 정체성을 지역성과 역사성에서 찾으려는 기획이며, 2004년 <청어람미디어>에서 출판되었다.¹⁴⁾ 총서의 기획 취지는 각 권의 책머리에 실린 임형택의 “‘동아시아 정체성을 묻는 오늘의 시각’ 총서를 기획하며」에 제시되어 있다. 그는 학술원이 주목하는 ‘동아시아’라는 공간에 대해 “현재에서 미래를 전망하자면 ‘전략’이요,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縱觀하자면 ‘방법론’인 셈”이라 하였다. 또 이 총서의 기획은 “동아시아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정체성에 대해 궁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오늘의 시각’을 통해 바라보고자 하는 것”으로 ‘방법론적 동아시아’의 시론이자 시발이라고 규정하였다.¹⁵⁾ 새로운 시각과 방법 모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 시기에 이루어진 공동연구 가운데 하나 더 지적해둘 것은 <한말·일제하 나주 지역 연구>이다. 3개년(2002~ 2005)에 걸쳐 진행된 이 연구는 동아시아사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통과 근대의 이분법적 이해를 넘어서려는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한말~일제 하에 걸친 나주지역 사회변동을 접근한 학술원의 공동연구였다는 점에서 이후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연구의 문제의식과 닿아있었다.¹⁶⁾

그러나 아직 이러한 모색이 구체적인 연구에 충실히 반영되어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총서 4권 가운데 역사 분야의 단행본(『새로운 질서를 향한 제국 질서의 해체』)의 내용을 일별할 때도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제1부: 동아시아 사회의 전통적 질서 성립>, <제2부: 제국 질서의 해체와 근대 국가로의 이행>, <제3부: 전환기 근대 동아시아 사회 질서와 구조>로 나누어 모두 11편의 글을 실고 있다. 제1부에서는 동아시아 질서가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제2부에서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질서가 해체되고 근대 국가로

14) 이때 함께 출간된 총서 4권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I. 『(사상)동아시아 유교문화의 새로운 지향』(책임편집: 최영진, 지준호), II. 『(여성)동아시아의 근대, 여성의 발견』(책임편집: 진재교, 박의경), III. 『(역사)새로운 질서를 향한 제국 질서의 해체』(책임편집: 서중석, 김경호), IV. 『(정치)동아시아의 근대와 정치경제』(책임편집: 김성주, 차문석).

15) 임형택, “‘동아시아 정체성을 묻는 오늘의 시각’ 총서를 기획하며”,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유교문화 교육·연구단 편(서중석·김경호 책임편집), 『(역사)새로운 질서를 향한 제국 질서의 해체, 청어람미디어, 2004, 5~7면.

16) 하원호, 손병규, 송양섭, 정승진, 박진철, 배항섭, 한영규, 『한말 일제하 나주지역의 사회변동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이행되는 과정을 한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제3부에서는 명·청 시기의 국가권력과 종족의 위상, 의화단 운동에 대한 러시아의 참가와 만주 점령, 20세기 초 중국의 제당업과 동아시아 시장, 1930년대 일본의 전향정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개별 연구들은 모두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책의 구성이나 편성이 밀도 있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것은 편자가 이 책에 대해 “21세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동아시아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과 자기비판이며, 향후 연구의 출발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다. 또 이 책의 의도가 “‘진정한’ 동아시아의 사회상”에 대한 물음, “동아시아상의 실체” 제시에 있다고 한 점도 여전히 앞서 제시한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와는 거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¹⁷⁾

한편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02년 8월부터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3국(중·일·러)의 한국인식>이라는 주제 아래 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도 3권의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¹⁸⁾ 이 공동연구는 구한말부터 1920~30년대에 걸친 시기에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 또한 이 시기 한국은 동아시아와 서구 세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를 동시에 살피고자 하였다. 역시 동아시아의 역사과정을 개별국가의 차원이 아니라, 상호 교류와 인식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일국사적 접근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찾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책머리에서 러시아를 ‘동아시아’라는 범주에 넣는 이유에 대해 “이 시기 러시아는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새 영토를 영유함으로써, (중략) 동아시아 영역국가의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였다.¹⁹⁾ 역시 ‘동아시아’를 특정 지역 내지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의 범위에는 연구자에 따라, 또 연구 대상에 따라 한중일 삼국으로 국한

17) 책임 편집자, 「동아시아 사회 질서의 전통과 근대적 의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유교문화 교육·연구단 편, 앞의 책, 16면, 28면.

18) 각권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진재교, 임경석, 이규수 외,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속의 한국(동아시아학술원총서 3)』,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4; 임경석, 진재교 외,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삼국과 한국-근대인식과 정책(동아시아학술원총서 4)』,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진재교 외, 『충돌과 착종의 동아시아를 넘어서-근대전환기 동아시아의 자기인식과 대외인식(동아시아학술원총서 5)』,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7.

19) 진재교, 임경석, 이규수 외, 앞의 책, 5면.

하거나, 거기에 베트남이나 몽골 등을 일부 포함하기도 하는 등 차이가 있다. ‘동아시아’를 하나의 통일된 지역으로 묶어서 사고하는 ‘동아시아 세계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는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이다. 그는 ‘동아시아 세계’의 공통적 요소로 한자, 유교, 율령, 불교라는 문화적 측면과 동아시아의 정치질서를 구축하는 ‘冊封體制’를 제시하였다. 니시지마의 ‘동아시아 세계론’은 이후의 ‘동아시아론’, ‘동아시아사’를 구상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²⁰⁾ 범위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동아시아 세계론’은 각국의 역사과정을 일국 단위의 고립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류와 연동이라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동아시아를 하나의 통일된 지역으로, 동아시아의 역사를 상호연관과 공통성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었고, 동아시아학술원의 초기 논의도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진 경향이 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아시아’를 하나의 통일된 공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그렇게 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른바 ‘근세’ 시기, 곧 한국의 조선시대와 중국의 명청, 일본의 에도시대를 비교해보더라도, 다 같이 소농사회가 형성되고 발전해간 시대라는 점,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주자학을 받아들였다는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²¹⁾ 그러나 사회의 구성이나 운영원리, 그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매우 다양했다. 어떤 부분은 한국과 중국이 유사하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더 이질적인 반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유사하고 중국이 이질적이 경우도 있다.

‘동아시아 세계론’에서 동아시아 문화의 핵심적 공통 요소의 하나로 지정한 ‘유교’에 국한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중국과 조선에서는 주자성리학이 지배이념으로 수용되어 체제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핵심적 기제로 작동했지만, 같은 지배이념에

20) 이러한 논리를 집대성한 것이 西嶋定生, 『古代東アジア世界と日本』, 東京大學出版會, 1983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선규, 「미국 및 일본에서 ‘傳統中國의 世界秩序’에 관한 연구사와 그 특징 비교」, 『역사문화연구』 3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9, 151~53면 참조.

21) 宮嶋博史, 「東アジア小農社會の形成」 『長期社會變動-アジアから考える(6)』, 東京大學出版會, 1994; 미야지마 히로시, 「1부 동아시아사의 서유럽모델론 비판, ‘소농사회론」, 『나의 한국사 공부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 너머북스, 2013 참조.

규정되면서 형성되어 간 법과 제도, 관습 등에는 간과하기 어려운 차이도 있었다. 더구나 일본에서는 18세기 후반 ‘주자학’이 확산되었고, 藩 차원에서는 통치이념이라 할 정도의 위상을 가지는 곳이 적지 않았지만, 막부 차원에서 지배이념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다. 또 중국의 경우 양명학이 유교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수용된 데 반해 조선에서는 이단적인 것으로 배척되었고, 일본의 유학자들이 받아들인 주자학은 중국이나 조선의 그것과 매우 이질적인 점이 많았음은 잘 알려져 있다.²²⁾ 동아시아 각국 간에 간과하기 어려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교만이 아니었다.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 과정이나 현상, 법과 제도 등에는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차이들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근세’ 시기 토지 파악방식이나 토지의 소유·매매를 둘러싼 법과 관습, ‘家’ 개념과 신분질서, 상속제도, 향촌질서, 그리고 민중운동이나 민과 국가의 관계 등의 면에서도 서로 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²³⁾ 또한 ‘동아시아 세계’ 혹은 중국 중심의 ‘책봉체제’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 동아시아 각국 간의 관계 면에서도 편차가 컸고, 동아시아 각국과 동아시아 외부 세계와의 관계 면에서 각국의 경험은 오히려 매우 이질적이라고 할 만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이 공통점을 무색케 할 만큼 다양한 차이점들은 동아시아의 범위를 한중일에서 베트남이나 몽골, 혹은 중국 북방과 서방의 유목 세력까지로 넓히면 그 차이는 더욱 확대된다.²⁴⁾

이 같이 ‘동아시아’를 하나의 완결된 세계로 바라보기에는 ‘동아시아’ 내부적으로

22) 일본이 수용한 주자학, 그리고 엘리트층과 주자학의 관계, 사회질서 내지 제도와 禮制의 관계 등에서 보이는 특징을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살핀 연구로는 와타나베 히로시, 박홍규 옮김, 『주자학과 근세일본사회』, 예문원, 2007 참조.

23) 동아시아 각국 역사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한국고문서학회, 『동아시아 근세사회의 비교-신분·촌락·토지소유관계』, 해안, 2006; 배항섭, 「조선후기 토지소유 및 매매관습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 『한국사연구』 149, 2010; 趙景達·須田努 編, 『比較史的にみた近世日本「東アジア化」をめぐって』, 東京: 東京堂出版, 2011; 미야지마 히로시, 앞의 2013 책; 기시모토 미오(岸本美緒), 洪成和 번역,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전통사회의 형성」, 『역사와 세계』 45, 효원사학회, 2014, 그리고 〈19세기의 동아시아〉 시리즈 제1권~5권에 실린 비교사 관련 연구들 참조.

24) 이 점은 ‘동아시아사’에 대해 한중일 간에 간과하기 어려운 ‘감각’의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또 기시모토 미오는 ‘동아시아’를 역사인식이나 역사연구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그 경계가 모호하고 가변적이라는 점, 나아가 동아시아의 범위를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그 외부로 제외된 지역이나 국가의 역사적 경험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安本美緒, 「東アジア史のパラダイム轉換」, 『韓國併合100年を問う』, 岩波書店, 2011).

나 외부와의 관계 면에서도 이질성이나 편차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의 통일된 ‘지역사’라는 맥락에서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최근 들어 동아시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일어난 상호 교섭과 상호 작용을 다루는 글로벌히스토리 혹은 유라시아사가²⁵⁾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사’로서의 동아시아사가 가지는 의미는 더욱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학으로서의 ‘동아시아학’ 역시 마찬가지이다. ‘동아시아학’을 진전시켜나가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된 것도 ‘동아시아’가 가진 이 같은 복잡성 내지 다양성 때문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사’가 가진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전제로 한다면, 니시지마처럼 ‘동아시아 세계’를 상정하지는 않는다하여도, 선불리 공통성을 찾아내기보다는 차이까지 온전히 드러내고 그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 배경 내지 맥락을 다른 구성 원리들과 연결하여 이해해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아시아사’의 가능성은 그 이후에 가늠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동아시아학’이라는 개념보다는 ‘동아시아 연구’, 공간적으로 ‘통일되고 하나의 체계를 가진 동아시아사’보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사’가 더 적절한 연구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곧 서구와 달랐던, 혹은 서구의 경험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은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를 공통적인 것만이 아니라, 차이점까지 함께 끌어안는 속에서 드러내고, 그것을 서구에 대한 한계나 부족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고유한 구성원리나 운영 원리, 혹은 삶의 방식이나 리듬이라는 맥락에서 설득력 있게 해명해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물론 서로 다른 점에 비해 같은 점이 적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서구 역사와의 거리에 비하면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에서 보이는 공통점을 강조함으로써 서구와는 달랐던 동아시아사의 전개

25) 글로벌히스토리의 개략적 내용과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Barry K. Gills and Wiliam R. Thompson, "Globalizations, global histories and historical globalities", Barry K. Gills and Wiliam R. Thompson, ed., *Globalization and Global History*, New York, 2006 ; Jürgen Osterhammel, "Globalization", Jerry H. Bentley ed., *The Oxford Handbook of World History*,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참조. 글로벌히스토리와 유라시아사를 둘러싼 최근의 연구동향을 일본 학계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살핀 글로는 고은미, 「글로벌 히스토리와 동아시아론-일본의 성과를 중심으로」, 배항섭·박소현·박이진 편, 『동아시아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동아시아교양총서 1』,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 참조.

과정을 분명히 드러내고, 역사 전개과정에 대한 서구중심적 이해를 비판하는 ‘전략’도 의미가 적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동아시아를 통일된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혹은 서구와 달랐던 역사 과정이 전개되었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각국 간의 차이보다는 공통성을 찾거나 드러내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크다. 이 역시 서구중심주의 비판이라는 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동아시아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방법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동아시아 역사 속의 공통성을 찾음으로써 동아시아 국가 간의 연대나 협력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것은 오히려 현실-식민지배를 둘러싼 갈등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적자생존적’ 국민국가 간 체제-을 우회하려는 나이브(naive)한 발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서구중심주의와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었고, 유사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근대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구 역사와의 다름, 혹은 서구 역사학자들의 동아시아 인식과의 다름을 강조한다고 하여 서구중심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인식론적 프레임을 근대중심주의의 틀을 온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²⁶⁾ ‘근대’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인식론적 근거와 그에 의거한 역사인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서구’와 ‘근대’를 동시에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사’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 ‘동아시아사’ 연구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심화된 고민이 요청되는 이유이다.

Ⅲ. HK사업과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사 추구(2007~2020)

1. 연구활동

학술원의 연구 활동은 2007년 11월 HK(인문한국)사업단에 선정되면서 전환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사업단의 어젠다는 <소통과 확산: 동아시아 연구를 통한 한국인문학의 창신>이었다.²⁷⁾ 사업단의 목표는 동아시아의 다원성과 보편성을 통일적으로

26) 배항섭, 「동아시아사 연구의 시각-서구·근대중심주의 비판과 극복」, 『역사비평』 109, 역사비평사, 2014, 153~161면 참조.

파악하는 새로운 모델의 개척·소통·확산을 통하여 한국인문학의 創新에 기여하는데 있었다. 연구의 방향은 기존 분과학문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복합인문학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동아시아 연구와 인문학 담론을 생산하는 연구 기관으로 발전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이러한 어젠다는 그 이전부터 온축되어 온 학술원 구성원들의 고민과 연구의 결과이기도 했다. HK사업단은 연구 영역을 크게 <생활>, <지식>, <질서> 3개 분야로 나누어 수행하며, 상위 개념으로 <소통> 영역을 설정하여 3개 연구 영역을 아우르는 학제 간 연구를 도모하였다.

‘동아시아 연구’를 내세운 것은 당시 인문학계 전반에 걸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던 ‘동아시아론’의 자극을 받은 것이지만, 동시에 기존의 동아시아론에 대한 비판 의식을 깔고 있는 어젠다였다. “본 사업단은 기존의 연구 성과와 동아시아 관련 담론의 반성적 성찰을 통해 새로운 학제 간 연구단위 중심의 동아시아 연구를 개발하고자 함”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연구 배경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 연구는 타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조 사례를 추구하는 기왕의 지역학이 아니라 인문학 기반의 동아시아 연구이며, 이를 통해 특정 지역 연구가 아니라 새로운 인문학적 패러다임의 창출을 도모한다고 하여 변별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공간적 대상으로서의 동아시아라기보다는 일종의 방법적 개념으로서의 동아시아라는 측면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었다. <동아시아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기왕의 연구가 보이고 있는 바, 동아시아 공통의 전통이나 문명적 정체성을 탐구하거나, 근대 국민국가의 틀을 과거로 역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동아시아의 역사성을 관통하는 거시적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이와 상통하는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기존의 동아시아 담론이 사회적 요구와 실체로서의 동아시아 개념을 혼동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실체로서의 동아시아”에 근거한 미래의 동아시아상 구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²⁷⁾ 이는 논리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라는 이해와는 결을 달리하는 과제설정이지만, 기왕의 동아시아담론이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비대칭적 역학관계 등 현실에 대한 고려가

27) 이하 인문한국 사업의 연구 계획과 관련한 내용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7년도 인문한국지원사업 인문분야 신청서(I)」, 2007, 1~18면 참조.

28)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7년도 인문한국지원사업 인문분야 신청서(I)」, 2007, 11면.

미흡하다는 데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아시아’가 여전히 특정한 공간이나 지역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은 다른 데서도 보인다.

우선 ‘동아시아’라는 공간에 대해 “시간의 추이와 현재적 상황에 따라 경계와 의미가 유동하며 변용하는 공간”, 혹은 “한자·유교등 공통의 문화적 유산과 경제적·정치적 공통 이해관계에 따라 그 외연과 내포를 달리하는 유동하는 장소” 등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인의 시각으로 동아시아를 재발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점에서 서구중심적 동아시아 이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동아시아를 ‘과거’의 경험적 공간이며, ‘미래’의 구성적 공간으로 이해”한 데서 여전히 동아시아를 하나의 (유동적) 지역 내지 공간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⁹⁾ ‘동아시아’를 구성하는 공간·장소의 경계가 ‘유동적’이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기왕의 지역학에서 말하는 ‘동아시아’를 넘어서려는 의도, 그리고 동아시아인에 의한 동아시아 ‘재발견’에 의해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자는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를 위한 접근, ‘재발견’의 방법이 분명하지 않았고, 여전히 동아시아라는 ‘공간’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추구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사’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적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학’ 내지 ‘지역사’의 자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또 하나, HK사업 신청서에 적시된 연구영역별 과제 및 접근 방법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점 가운데 하나는 역사적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물론 ‘동아시아 역사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전통과 근대의 단절을 넘어서 새로운 방법론적 실험’, ‘동아시아를 거시적인 역사전망 속에서 조망’한다는 점 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사’ 내지 ‘동아시아 속의 한국사’를 다루는 이글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인문학적 패러다임’을 창출하려는 노력 속에는 동아시아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 곧 역사적 경험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점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다. <동아시아 연구의 의의와 과제 도출>에서는 “세계질서의 재편과 동아시아의 부각에 대한 학문적 대응”,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는 학문적 위상 제고”, “동아시아 내부의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문제와 가치 연구” 등을 강조하고 있다. 대범하게 보면 이 역시 역사적 접근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역사적 접근보다는 ‘현실’이 강조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는 역사적 접근이나 역사적 시각보

29)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앞의 신청서, 9면, 15면.

다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연대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같은 동아시아의 현실과 관련한 과제들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역사적 접근이 취약하다는 점은 기존의 동아시아담론에서도 보이는 특징이었다.

어쨌든 인문한국(HK) 사업단에 선정된 것은 학술원의 동아시아사 연구에도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 배후에는 동아시아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선 동아시아는 한국인의 장기적인 삶과 그들이 만들어간 질서체계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역사적인 공간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동아시아는 일국적 시각이나 서구 중심적 사유로부터 벗어나 한국사회를 형성해온 궤적을 재구성하고, 장기적인 시간주기 속에서 현재의 변화를 탐색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모색할 수 있는 시공간적 질서라는 점이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동아시아학이 서구 중심적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변화무쌍한 동아시아의 현상적 변화를 추적하는 데 급급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성찰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과거와 미래’, ‘주체와 타자’가 상호 소통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전통과 근대의 단절을 넘어선 새로운 방법론적 실험을 시도하고, 동아시아 내부 각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각 지역의 고유성은 물론, 동아시아에 공존하는 -서구학문에 상대화된- 고유성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표 2〉 HK 사업 기간(2007~2017) 중 동아시아사 관련 주요 학술회의

연번	개최일시	학술회의명	개최장소
1	2008.08.22~23	국가체제와 동아시아질서	성균관대
2	2009.01.21	2009년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내셔널리즘	성균관대
3	2009.02.13~14	1919년 동아시아 근대의 새로운 전개	성균관대
4	2009.05.22~23	5.4운동 9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오사, 기억과 해석, 동아시아	성균관대
5	2012.02.10~12	아시아 각국과 한국의 문명교류사	성균관대
6	2012.06.28	20세기 초 한국과 대만의 인구와 토지에 관한 자료와 연구	성균관대
7	2014.08.21~22	동아시아에서 21세기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성균관대
8	2015.08.21	동아시아 연구: 동향과 전망	성균관대
9	2016.04.22~23	성균관대-중국사회과학원 학술회의: 동아시아 역사상의 문화교류와 상호인식	성균관대
10	2016.09.27	법학과 인문학의 탈경계: 동아시아의 법률과 문화	성균관대

인문한국 사업 시작과 함께 20여명의 HK교수와 연구원을 중심으로 어젠다 수행을 위해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매월 2회씩의 <동아시아포럼> 개최되어 내부 구성원들 간의 문제의식이 소통되고 공유되었으며,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개인 및 공동연구의 성과들은 매년 수차례의 국내외 학술대회를 통해 학계에 보고되었다. HK사업 기간(2007~2017) 중 개최된 동아시아사 관련 주요 학술회의는 <표 2>와 같다.

이외에도 학술원 구성원들이 독자적인 패널을 구성하여 매년 수차례의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하여 세계 학계와의 소통과 교류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학술원은 학문적 교류와 성과의 세계화를 위해 설립 초기부터 해외의 다양한 유관 연구기관과 교류를 해왔다. 특히 동아시아 역사 분야에서는 일본의 도쿄대, 교토대와의 교류, 그리고 중국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와의 교류가 대표적이었다.³⁰⁾ 이 가운데 일본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와는 2003년부터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학술토론회를 서를 방식으로 상호 교차 개최해왔으며, 2011년부터는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가 결합하면서 3개 학교가 매년 윤번으로 정기적 학술회의를 개최해왔다. 이 3개 대학의 정례 학술회의가 개최될 수 있었던 데는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에 재직하다가 동아시아학

〈표 3〉 성균관대 도쿄대 교토대 3개대학 학술회의 개최실적

연번	개최일시	학술회의명	개최장소
1	2011.01.28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지’의 유통	京都大學
2	2012.01.24	동아시아의 근대	성균관대
3	2013.01.25	동아시아의 ‘기억’	東京大學
4	2014.01.24	동아시아로부터 세계사를 본다/생각한다	京都大學
5	2015.01.23	동아시아를 사유한다-共通・差異, 關係	성균관대
6	2016.01.22	아시아의 전쟁(Asian Wars)	東京大學
7	2017.01.20	동방문화연구의 기억과 유산	京都大學

30) 중국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대동문화연구』 본 호에 실린 김정호의 글 참조.

술원으로 전임해온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³¹⁾ 그리고 교토대 인문학연구소장을 역임한 김문경 교수의 역할이 컸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인문한국 사업 시작 후 HK연구교수와 연구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를 추진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위기가 찾아 왔다. 연구재단 측의 방침 변경과 학내 사정, 연구 인력의 타대학 전임(轉任) 등의 사정이 겹치면서 사업 초기 연구계획을 수립하였던 연구 인력을 비롯하여 많은 구성원들이 일거에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인문한국 전임 인력들이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 대폭 교체되었고, 그 여파로 동아시아 역사 분야의 연구계획이나 내용도 일부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역사 분야의 연구는 그 이전부터 진행해오던 동아시아 자료학, 호적을 중심으로 한 역사인구학, 그리고 19세기(내지 근대전환기)의 동아시아 연구 등 크게 3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물론 HK사업 기간 중 동아시아사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이외에도 다양한 시대와 주제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중심이 된 것은 앞의 세 가지 3분야였다. 여기서는 특히 <19세기의 동아시아>라는 연구 영역, 그 가운데서도 동아시아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과 관련된 연구 활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³²⁾ 먼저 <19세기의 동아시아> 관련 학술회의 개최 실적은 아래 <표 4>와 같다.

동아시아 연구 방법이나 시각에 대한 워크숍이 1회(1), 19세기~20세기 동아시아 사회질서에 대한 주제가 5회(3, 5, 9, 10, 12),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사유 체제에 대한 학술회의가 1회(4), 사회경제사 및 사상과 문화에서 보이는 19세기 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학술회의가 2회(7, 8) 민중운동을 통한 동아시아사에 대한 비교사적 접근이 2회(2, 6). 기타 학술회의가 1회(11) 개최되었다.

31)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는 도쿄대학교에 재직하다가 2002년 5월 학술원 교수로 부임하였다. 전공분야는 한국사이지만, 일찍부터 동아시아를 비교사적으로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러한 성과들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은 2013년에 발간된 『나의한국사 공부』(너머북스),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한다』(창비) 등 두 권의 책으로 정리되었다. 이 역시 학술원의 동아시아 연구에 큰 자극제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최근에는 그간 진전된 연구들을 집약한 저작, 『한중일 비교 통사』, 너머북스, 2020이 출간되었다.

32) 동아시아 역사 분야 가운데 간독과 호적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자료학 및 역사인학 분야의 연구에 대해서는 『대동문화연구』 본호에 실린 김정호의 글 참조.

〈표 4〉 HK 사업 기간(2007~2017) 중 “19세기의 동아시아” 관련 학술회의

연번	개최일시	학술회의명	개최장소
1	2012.01.11	동아시아에서 전근대/근대의 이분법 너머를 생각한다(워크숍)	성균관대
2	2012.07.20	임술민란 150주년기념 학술대회: 19세기 동아시아의 민중운동과 조선사회	성균관대
3	2012.08.24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과 일본의 사회와 문화	성균관대
4	2013.08.16	19세기말~20세기 초 동아시아 전통지식인의 삶과 사상	성균관대
5	2013.12.17	19세기 한국사회와 근대 (워크숍) 한림대 한림과학원 HK연구소와 공동개최	한림대
6	2014.08.29~30	동학농민운동120주년 국제학술대회: 근대 전환기 세계의 농민운동과 반침략운동	성균관대
7	2015.02.13~14	성균관대-한림대 공동학술회의: 장기 19세기의 동아시아-변화와 지속, 관계와 비교(1)	성균관대
8	2016.02.18~19	성균관대-한림대 공동학술회의: 19세기의 동아시아-변화와 지속, 관계와 비교(2)	성균관대
9	2017.02.16~17	성균관대-한림대 공동학술회의: 19세기 동아시아의 국가와 사회	성균관대
10	2018.02.23	19세기 동아시아 연구와 새로운 역사상 모색	성균관대
11	2019.07.19	학술대토론회: 한국 전근대의 양전과 부세제도	성균관대
12	2020.08.25	근대전환기 국가 권력과 사회 질서	ZOOM 화상회의

이 가운데 연구방법 및 시각을 다룬 것은 2012년 1월에 개최된 워크숍이다. 이 워크숍은 학교 내외의, 다양한 학문분과의 연구자들이 결합하여 구성된 <19세기의 동아시아> 연구 모임의 출발에 즈음하여 개최된 것이다. 서로의 문제의식을 가다듬고 향후의 연구 방향을 논의 하는 자리였다. <전근대-근대의 연속적 파악>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그 동안의 연구들에서 보이는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전근대와 근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이해되어 온 데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전근대-근대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이해 방식에 대한 검토, 전근대-근대의 연속적 파악이 필요한 이유, 그를 통한 기대효과 등이 토론되었다.³³⁾ 전근대

33) 이 자리에서는 “전근대/근대의 이분법적 이해를 넘어서기 위하여”(배향섭), “19세기 농업경영과 그 지향·안정과 자급”(김건태), “동아시아 근대의 장기연속적 파악을 위한 농업·농민 문제 再考”

내지 전통과 근대의 이분법적 이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이전부터 학술원에서 추구해온 연구시각이었다.

<19세기의 동아시아> 연구 모임의 취지는 2012년에 제출된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연구소 중점과제 연구계획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연구주제는 ““근대이행기”의 동아시아”였다.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를 극복함으로써 서구와 근대를 상대화하고 동아시아사의 재인식한다는 취지였다. 그를 위해 18세기~20세기 중반에 걸친 “근대이행기” 내지 “장기 19세기”의 동아시아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19세기의 동아시아> 연구 모임은 2012년부터 매월 1회(2020년에는 “ZOOM 화상회의”로 매월 2~3회 진행)의 정례 세미나를 진행하였고(현재까지 105회 진행), 매년 1회 이상의 국내외 학술회의를 진행해 왔다. 세미나 모임이나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글 가운데 일부를 선정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단행본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표 4>에 제시된 학술회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세기 동아시아의 민중운동과 조선사회”(2012년 7월)는 임술민란 15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빈발했던 19세기의 민중운동을 비교함으로써 임술민란을 비롯한 민중운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19세기 조선사회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사회를 재조명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이 학술회의의 결과는 임술민란과 19세기 동아시아 민중운동』(2013)으로 출간되었다. “근대 전환기 세계의 농민운동과 반침략운동”(2014년 8월)은 “동학농민운동” 120주년을 기념한 국제학술대회로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국내외 연구자 10명이 중국 태평천국운동과 의화단운동, 메이지 시기 일본의 민중운동, 스페인의 침략과 코스타리카 농민의 저항, 영국 침략에 대한 인도의 세포이 반란, 프랑스의 침략과 베트남 농민의 저항, 미국의 침략과 필리핀 농민의 저항, 독일 농민전쟁과 동학농민운동의 비교사적 연구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동학농민전쟁과 동아시아 민중운동은 물론 근대전환기 세계 각국의 민중운동을 비교함으로써 동학농민전쟁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맥락에서 새롭게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안승택)의 발표와 이에 대한 6명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사업단, 「성균관대학교 HK사업단 기획연구 워크숍-동아시아에서 전근대/근대의 이분법 너머를 생각하다」, 2012.1. 11 참조.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과 일본의 사회와 문화”(2012년 8월)와 “19세기말~20세기 초 동아시아 전통지식인의 삶과 사상”(2013년 8월)는 일본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진행한 것이다. 애초에는 에도 후기 및 메이지 시기를 전공한 일본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연구와 학술회의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아 2회에 그치고 말았다. 이 가운데 2013년의 학술회의 결과는 『동아시아에서 세계를 보면?』(19세기의 동아시아 2, 2017)에 실렸다. 2015~2017에 걸쳐 한림대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회의의 결과는 『19세기 동아시아를 읽는 눈』(19세기의 동아시아 3, 2017), 『비교와 연동으로 보는 19세기의 동아시아』(19세기의 동아시아 4, 2020)로 묶여 출간되었다. <19세기 동아시아 연구와 새로운 역사상 모색>(2018년 2월)은 그 동안 진행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상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한 시론적 논고들을 발표한 자리였다. 『근대전환기 국가 권력과 사회 질서』(2020년 8월)은 HK플러스 사업의 주제인 ‘亂과 민주주의’라는 연구 테마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 방향을 가늠해 본 학술회의였다. 향후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더욱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지만, C-19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재앙적 사태는 ‘모든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C-19를 계기로 전면에 대두된 기후변동과 환경문제는 기왕의 연구 방향이나 내용,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통해 연구 방향은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모색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년 8월 “동아시아에서 21세기 패러다임을 모색한다”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개최된 학술회의는 HK연구소와 BK21+동아시아학 융합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이틀에 걸쳐 5개국 12명이 주제 발표를 하였다.³⁴⁾ 이 회의는 동아시아학술원이 지난 십여 년간 쌓아 온 연구 활동과 학문적 성과를 성찰하는 한편, 동아시아연구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모아보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지금까지의 동아시아론이 현실과 미래문제를 둘러싼 담론을

34) 제1부 ‘동아시아사의 성찰과 방법’에 6개의 주제가 발표되었으며, 제2부 ‘동아시아, 역사인식의 새로운 구상’ 역시 6개 발표로 구성되었다. 미야지마 히로시(성균관대), 존 던컨(John Duncan, UCLA), 야마시로 신이치(교토대), 한기형(성균관대), 안데쉬 칼손(Anders Karlsson, SOAS), 오영균(Arizona State Univ.), 邱源媛(중국사회과학원), 배항섭(성균관대), 손병규(성균관대), 박소현(성균관대) 등이 발표하였다. 학술대회의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항섭, 「동아시아에서 21세기 패러다임을 모색하다-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리뷰」, 『성균차이나브리프』 Vol.2 No.4, 성균관대학교 중국연구소, 2014, 149~154면 참조.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반면, 역사적 경험을 통해 접근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아시아를 역사적 맥락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학술회의의 취지는 동아시아를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지역 연구의 방법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연구방법 자체를 검토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 21세기의 세계를 전망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바꿔 말한다면 연구대상으로서의 동아시아가 아니라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를 연구하는 데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미야지마 히로시는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 동아시아 연구의 의미와 전망>라는 발표를 통해 동아시아 연구가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학문체계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전근대와 근대라는 시대구분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 강조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경험 가운데는 서구적 경험에 입각한 전근대-근대의 이분법으로서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³⁵⁾ 배항섭은 <동아시아사 연구의 시각-서구·근대 중심주의 비판과 극복>에서 동아시아 연구가 서구중심만이 아니라 근대중심적 역사인식을 동시에 겨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비서구의 시선으로 서구를 새롭게 보기 위해서도 필요하듯이, 전근대로부터 근대를 심문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가고 근대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근대중심주의와 그것이 구성한 일직선적인 시간관념에 대한 비판이 요청된다는 것이었다. 동아시아사 연구의 시각 내지 방법으로 전근대-근대에 대한 이분법적 이해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근대중심주의(moderno-centrism)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그 극복을 위한 핵심적 과제는 근대와 중세의 관계를 억압-피억압의 관계가 아니라 대칭적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을 확보하는 데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³⁶⁾

여기서 발표된 글 가운데 배항섭의 「동아시아사 연구의 시각-서구·근대 중심주의 비판과 극복」과 황진지에[黃俊傑]의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생각하기」는 <역사비평>

35) 미야지마 히로시,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동아시아 연구의 의미와 전망”, 「2014년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학술회의-동아시아에서 21세기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14.8.21.~22일 참조.

36) 배항섭, 앞의 2014 논문 참조.

에 기획특집 <동아시아 연구의 관점>에 게재되어 학술원이 진행하는 동아시아 연구의 시각과 방법을 학계에 좀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³⁷⁾ 또 이 두 편의 글과 존 던컨(John Duncan)이 발표한 “한국사 연구자의 딜레마”는 2015년 <19세기의 동아시아> 시리즈 제1권,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동아시아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에 수록되었다.³⁸⁾ 앞서 언급했듯이 이 책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2. 연구성과

HK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에는 연구 성과를 모으거나 번역 혹은 자료를 정리한 많은 단행본들이 출간되었지만, 먼저 살펴볼 것은 2단계 BK21 사업의 결과로 출간된 단행본들이다. 2006~2013년도에는 동아시아학과가 앞서 언급한 1단계에 이어 2단계 BK21 사업에(“동아시아학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사업단”) 선정됨으로써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과 연구의 융합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단계 BK21 사업의 연구주제는 “동아시아 사회의 전통과 현대”였다. “서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아시아학의 편제와 연구 시각을 극복하고, 한국 및 동아시아의 내재적 논리에 근거한 대안적인 학문 체제를 마련한다.”는 목표 속에 인문학과 사회과학 간의 학제적 융합, 동아시아적 시각, 전통·근대·현대를 아우르는 통합적 연구 등을 기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³⁹⁾ 그 결과 『근대 동아시아 지식인의 삶과 학문(동아시아학술원총서 8)』(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사상과 문화로 읽는 동아시아(동아시아학술원총서 9)』(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학문장과 동아시아(동아시아학술원총서 11)』(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등 3권의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동아시아사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모두 동아시아학은 동아시아를 새롭게 인식하고 연구방법을 마련하는 초석이라는 점에 공명하는 가운데 동아시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

37) 『역사비평』 109, 역사비평사 2014 참조.

38) 미야지마 히로시, 배향섭 편,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동아시아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 너머북스, 2015.

39)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제2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인문사회 분야 사업 신청서」, 2006, 205면.

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연구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다.

다음으로 HK사업에서도 연구성과들을 모은 많은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그 중 동아시아사와 관련된 단행본은 <표 4>와 같다.

<표 5> HK 사업 기간(2007~2017) 중 발간된 동아시아사 관련 단행본

연번	서명	발간년월일	비고
1	임술민관과 19세기 동아시아 민중운동	2013.04.30	
2	19세기 민중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	2015.08.31	단독저서
3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동아시아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	2015.11.30	19세기의 동아시아 1
4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전통지식인의 대응과 새로운 사상의 형성	2016.08.31	
5	동아시아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2016.08.31.	동아시아 교양총서 1
6	동아시아로부터 생각한다	2017.04.30.	동아시아 교양총서 2
7	동아시아에서 세계를 보면?	2017.06.15	19세기의 동아시아 2
8	19세기 동아시아를 읽는 눈	2017.06.15	19세기의 동아시아 3
9	How Shall We Study East Asia?	2017.08.31.	
10	비교와 연동으로 보는 19세기의 동아시아	2020.02.21	19세기의 동아시아 4
11	19세기 동아시아의 장기 지속과 변동	2020.12.31(예정)	19세기의 동아시아 5

먼저 『How Shall We Study East Asia?』는 그 동안 학술원이 추진해온 한국 인문학의 세계화를 지향하여 발간된 영문 단행본이다. 여기에는 학술원 구성원의 글이나 학술원이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던 글, 또는 학술원이 발행하는 영문저널인 SJEAS(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에 실렸던 글 가운데서 선정된 16편이 실렸다.⁴⁰⁾ 이 책은 동아시아학술원의 학문적 지향과 성과를 해외 학계에 알리는 데 일조하리라 생각한다.

40) Hiroshi, Miyajima , Walraven, Boudewijn, *How Shall We Study East Asia?*, Paju: Jimoondang, 2017. 편집은 학술원 초빙교수이던 Walraven Boudewijn(전 Leiden大)과 학술원의 宮嶋博史(성균관대) 두 분이 담당하였으며, 왈라벤 교수는 모든 글의 영문 번역을 꼼꼼히 검토하는 수고를 해주었다.

다음으로 『동아시아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2016)와 『동아시아로부터 생각하다』(2017)는 ‘동아시아학 입문서’로 기획된 단행본이다. 여기에는 역사만이 아니라, 문학, 역사, 철학, 사회과학 분야의 글들이 함께 실려 있다. 이 두 권의 책에 실린 글들이 충분한 일관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학문적 패러다임 창출”이라는 학술원의 지향을 함께 추구해온 학술원 구성원들이 그 동안 고민해온 연구 성과를 담은 것이다. <동아시아 교양총서>라는 시리즈 명이 붙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가급적이면 쉬운 글로 고쳐 쓰려고 노력했지만, 편차가 적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19세기의 동아시아> 모임의 연구 활동 결과를 묶어 출간한 단행본들이 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까지 모두 다섯 권 발간된(제5권은 12월말 발간 예정) <19세기의 동아시아> 시리즈이다. 먼저 지적해둘 점은 이 시리즈에서 말하는 ‘동아시아사’는 ‘지역사’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서구중심적 역사인식의 극복만이 아니라, 근대중심적 인식도 동시에 넘어서려는 의도를 가진 방법적 개념이었다. 제1권의 제목인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라는 말은 알렉산더 우드사이드가 ‘중국, 베트남, 한국 그리고 세계사의 위험성’이라는 부제가 붙은 『잃어버린 근대성들』에서 제기한 핵심적 질문이기도 하다. 서구중심주의(eurocentrism)에 입각한 역사인식이나 시간관으로는 동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이나 시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을 강조한 표현이다. 서구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대표적 논의인 이른바 캘리포니아 학파의 세계경제사 구상이나, 서구중심주의를 상대화하는 전략으로 제기된 ‘복수의’ 혹은 ‘대안적’ ‘근대성’ 등은 근대 자체에 대한 전면적 비판이 아니라 근대중심주의를 재귀적(reflexive)으로 드러낸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⁴¹⁾

<19세기의 동아시아>에서는 서구중심주의 비판론이 가진 이러한 문제들을 넘어서기 위해 서구중심주의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는 근대중심주의를 동시에 비판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서구에 의한 동아시아사 서술만이 아니라, 서구에 의한 서구사도 포함한 세계사 전체 서술에서 보이는 인식론적 기반 자체를 문제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이 시리즈의 취지는 제1권인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의 「머리말: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라는 질문」에 소개되어 있다. 조금 길터

41) 이에 대해서는 배향섭, 앞의 2014 논문, 「탈근대론과 근대중심주의」, 『민족문화사연구』 62, 민족문화사학회, 2016 참조.

라도 인용해 본다.

동아시아의 19세기는 '근대'를 선취한 서구로부터의 충격(western impact)에 따라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고, '근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이해의 바탕에는 앞서 언급한 서구중심주의(eurocentrism), 곧 서구에 의한 비서구의 식민화뿐만 아니라, 근대에 의한 전근대의 식민화, 곧 근대중심주의(modernocentrism)라는 이중적 식민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근대중심주의는 근대인의 의식 속에 전근대를 여과하여 주입하기 위한 하나의 지식 체계이자, 전근대를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억압하는 동시에 근대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란 서구중심적·근대중심적 인식에서 벗어나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나아가 세계사를 재구성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시각으로서의 '동아시아'임을 미리 밝혀둔다. 서구에 의해 구성된 동아시아상이 아니라, 동아시아로부터 동아시아상을 재구축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에 의해 구성된 세계사상의 재구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여기서는 '역사적 시간을 넘나드는(transhistorical)' 방법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최근 공간적 인식이라는 면에서 서구중심적·단선적 발전론과 결합된 자국중심적·일국사적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transnational) 접근이나, 비교사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시간적인 면에서도 근대중심적 인식을 넘어서는 데는 '시간을 넘나드는' 접근, 그리고 전근대와 근대를 비교하거나 서로 연결하여 이해하는 접근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⁴²⁾

각권의 주제에 따라 조금씩 변주가 있고, 또 이러한 취지가 시리즈 전체는 물론 각각의 단행본에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위에 인용된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이 책에 대해서는 몇 편의 서평이 제출되기도 하는 등 학계로부터 관심을 받기도 했다.⁴³⁾ <19세기의 동아시아> 시리즈와

42) 배항섭, 「머리말: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라는 질문」, 미야지마 히로시, 배항섭 편, 앞의 2015 책, 10~33면 참조.

43) 류준필,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를 넘어서?」,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동아시아사의 새로운

관련하여 여기서 지적해두고 싶은 점은 동아시아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에 관해 새로운 개념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중심주의(moderno-centrism)’와 트랜스 히토리칼(trans-hastorical)이라는 두 개의 개념이 그것이다. 이 두 개의 개념 모두 이전까지 한국 학계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게 사용된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중심주의’를 학술적 용어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글로벌히스토리를 주도해온 제리 벤틀리(Jerry H. Bentley)이다. 그는 ‘근대중심주의(moderno-centrism)’의 요체를 “전근대와 근대 사이의 연속성에 대해 깨닫지 못하도록 근대 세계에 매혹당하는 것”에서 찾았다. 근대 중심주의는 근대가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게 만듦으로써 전근대와 근대의 역사적 경험을 왜곡시킨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근대중심주의의 극복을 위해 세계의 역사를 더 넓은 범위와 긴 시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근대중심주의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비판은 타당한 것이지만, 근대 중심주의가 가진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함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비판하는 데는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벤틀리가 근대중심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취하는 방법은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내지 신자유주의 질서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근대중심주의의 극복을 위한 그의 방법은 이미 고대부터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상호작용과 개인적·집단적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벤틀리는 고대에는 그것이 “근대처럼 항상 강렬하고 체계적”이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해는 자칫 그가 세계사의 전개 과정을 서로 다른 사회나 지역 사이에 개인이나 집단 간에 교류와 상호작용이 확대해나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쉬우며, 따라서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정당화하는 시각이라는 오해를 살 만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는 벤틀리 스스로 자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재의 세계적 자본을 위한 계보학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설명을 생산하지 않는다.”라는 변명을 굳이 부기하고 있다는 데서도 확인된다.⁴⁴⁾

이해를 찾아서》, 『역사비평』 114, 역사비평사, 2016; 김시덕, 「19세기라는 화두: 『19세기의 동아시아 1-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황해문화』 9, 새얼문화재단, 2016; Cho Young-hun, The History of East Asia as Newly Recognized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Historians, *Cross-Currents: 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Review E-Journal* No. 22 (March 2017) · (<http://cross-currents.berkeley.edu/e-journal/issue-22>).

44) Bentley, Jerry H., “Beyond Modernocentrism: Toward Fresh Visions of the Global Past”, in

<19세기의 동아시아>에서는 벤틀리의 ‘근대중심주의’가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넘어서기 위해 사이드(Edward W. Said)가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내린 정의를 차용하는 한편,⁴⁵⁾ 그것을 좀 더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근대중심주의’라는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래서 ‘근대중심주의’에 대해 “전근대를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억압하기 위한 근대의 방식”이며, “전근대에 관한 지식체계로서의 근대중심주의는 근대인의 의식 속에 전근대를 여과하여 주입하기 위한 필터로 만들어”진 것으로 새롭게 규정하였다.⁴⁶⁾ 나아가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에서는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기에는 “근대에 의한 전근대의 식민화” 내지 “근대에 대한 특권화”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19세기의 동아시아> 연구에서는 근대의 우월성과 전근대에 대한 특권적 지위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근대를 상대화하고 새로운 역사상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역사적 시간을 넘나드는(trans-historical)’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였다. ‘공간적’ 접근인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과 대비되는 시간적인 면에서의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근대를 미화하자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다음과 같이 근대중심적 인식을 넘어서는 데는 ‘시간을 넘나드는’ 접근 내지 ‘역사적 시간들을 가로지르는’ 접근이 유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중세’ 혹은 ‘근대’가 하나의 통일되고 동질적인 시간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비서구로부터 서구를 바라보는 역전된 시각이 요청되듯이 전근대로부터 근대를 바라보는 것, ‘전근대’의 관점으로부터 ‘근대’에 관한 질문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요청된다. 특히 동아시아는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의 극복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역사적 경험이 서구와는 크게 대조

Victor H. Mair, ed., *Contact and Exchange in the Ancient World*, Honolulu, 2006.

45)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억압하기 위한 서양의 방식”이며(에드워드 사이드 지음,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7, 18면), “동양에 관한 지식체계”로서 “서양인의 의식 속에 동양을 여과하여 주입하기 위한 필터”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였다(같은 책, 25~35면).

46) 배향섭, 「동아시아사 연구의 시각-서구·근대중심주의 비판과 극복」, 『역사비평』 109, 역사비평사, 2014, 150~151면.

적이어서 관료제를 비롯하여 서구에서는 근대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혹은 ‘서구의 충격’이나 ‘서구적 근대’를 수용하기 이전부터 서구 근대와 흡사하게 성립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은 서구가 구성해 놓은 역사인식이나 설명틀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동아시아의 역사적 경험 이, ‘시간을 넘나드는’ 접근, 또는 전근대와 근대를 비교하거나 서로 연결하는 접근을 통해 근대중심주의를 넘어서는 단서를 열어가는 데도 매우 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⁴⁷⁾

메리엄 웹스터(merriam-webster)에 따르면 ‘트랜스히스토리칼(trans-historical)’이라는 용어는 1909년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것은 역사적 시간의 경계를 초월한다는 의미였다.⁴⁸⁾ 이후 영원한(eternal),⁴⁹⁾ ‘인류역사의 전시기에 걸쳐 있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왔지만, 사용 빈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⁵⁰⁾ 그러나 “trans”라는 접두어는 across, through, over, beyond 등의 의미 자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었다. 그런 의미로의 전용은 네자르 알사야드(Nezar AlSayyad)와 아난야 로이(Ananya Roy)에게서 처음 보인다.

우리의 예전 연구 중 일부가 그 범위에 있어 ‘국경을 넘나드는’(‘transnational’) 것—‘이곳’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기 위해 ‘저곳’을 활용했던—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논의는 ‘역사를 넘나드는(transhistorical)’ 것—‘그때’의 관점으로부터 ‘지금’에 관한 질문들을 도출해내는—이다.⁵¹⁾

47) 이상의 내용은 배향섭, 「머리말: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라는 질문, 앞의 2014책에서 가져온 것이다.

48) Transhistorical definition is - transcending historical bounds. First Known Use of transhistorical, 1909, in the meaning defined above(“Transhistorical.” Merriam-Webster.com Dictionary, Merriam-Webster,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transhistorical>. Accessed 21 Oct. 2020).

49) <https://www.lexico.com/definition/transhistorical>.

50) occurring throughout all human history(<https://www.collinsdictionary.com/dictionary/english/transhistorical>).

51) "If some of our previous work has been 'transnational' in scope, using 'there' to pose critical questions about 'here', then this argument is 'transhistorical', generating questions about 'now' from the perspective of 'then'"(Nezar AlSayyad and Ananya Roy, *Medieval Modernity: On Citizenship and Urbanism in a Global Era, Space and Polity*, Vol. 10, No. 1, 1~20, April 2006,

위의 인용문을 볼 때 이들은 ‘trans-historical’이라는 용어를 ‘국경을 넘나드는’이라는, 곧 공간적 경계를 가로지른다는 의미를 가진 ‘트랜스셔널(transnational)’이라는 개념과 대비되는 의미, 곧 ‘역사적 시간을 넘나드는’이라는 의미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의 동아시아> 시리즈에서 사용하는 ‘트랜스히스토리칼(trans-historical)’의 의미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전용된 의미를 활용하여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단서로 삼고자 한 것이다. ‘트랜스히스토리칼’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네자르 알사야드는 “‘그때’의 관점으로부터 ‘지금’에 관한 질문들을 도출해내는” 점을 중시하였다.

이는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의 문제의식과 상통하는 것임은 물론이지만,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에서는 이 개념을 좀 더 확장하여 서로 다른 역사적 시기를 상호 교차하면서 비교하고, 나아가 서로 삼투하고 뒤섞일 수 있다는 데 중요한 의미를 두고자 하였다. 예컨대 근대의 특정한 법이나 제도, 역사 현상을 중세 혹은 고대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근대를 상대화하고, 나아가 근대 혹은 중세, 고대 등으로 근대인들이 구분해놓은 역사의 각 시기들이 통일되고 완결된 시간이라는 근대 중심적 시간관에 대해 질문을 하자는 것이다. ‘근대’ 또는 ‘중세’로 구획된 각 시기는 단일하고 동질적이라는 것, 그리고 각 시기를 구성하는 영역이나 요소들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균질적으로 형성된다는 인식은 근대가 구성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오만한 심판자’인 근대의 주장과는 달리 근대-전근대 사이의 벽은 빈틈없는 촘촘하고 매끄러운 것이 아니라 구멍투성이이다. ‘중세’나 ‘근대’는 ‘중세적’·‘근대적’ 현상만으로 균질하게 구성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중세’에도 ‘근대성’이, ‘근대’에도 ‘중세성’이 얼마든지 병존할 수 있는 것이다. ‘중세’나 ‘근대’라는 역사적 시간은 근대중심주의가 규정해 놓은 다양한 ‘중세적인 것’ 혹은 그렇지 않은 것, ‘근대적인 것’ 혹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병존하며, 심지어 오랜 기간 동안 상호작용하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⁵²⁾

이 같은 트랜스히스토리칼(trans-historical)한 접근은 ‘역사적 시간을 넘나드는’ 접근 내지 ‘역사적 시간들을 가로지르는’ 접근, 그리고 그를 통해 전근대와 근대를 비교하거나 서로 연결하여 이해하고, 나아가 근대중심주의가 규정하고 있는 전근대

p.5).

52) 이상 시기구분과 관련된 내용은 배향섭, 앞의 2016 논문 참조.

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이 병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트랜스히스토리칼한 접근에 의한 새로운 시간관은 근대가 차지하고 있는 특권적 지위를 무너뜨린다. 이것은 근대에 의해 억압·배제되었던 다양한 요소와 움직임들 속에 내포되어 있거나 잠재되어 있던 가능성들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⁵³⁾ 또 근대가 구성한 것과는 달리 전근대이든 근대이든, 전근대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들이 얼마든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러한 공존의 가능성은 ‘근대 이후’의 새로운 체제에 대한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상상력을 열어준다.

근대중심주의의 기저에는 전근대에 대한 근대의 특권화, 전근대는 근대를 향해 발전해 나가야 할 숙명을 안은 시간이라는 시간관을 가진 단선적 발전론 내지 목적론이 자리 잡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바로 근대에 의한 전근대의 식민화이다. 예컨대 “근대중심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톰슨이 지적했던,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가 본원적으로 산업혁명을 도모하고 있었다는 인식이야말로⁵⁴⁾ 근대중심주의의 역사인식과 시간관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매우 다양한 지향성 내지 방향성을 가진 요소나 움직임들이 있으며, 역사의 전개과정은 무수하게 많은 그러한 요소와 움직임들의 서로 중층적, 복합적으로 얹혀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근대 역시 그러한 다양한 움직임들의 복합적 작용과 우연도 결부된 연쇄에 의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일 따름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근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무수한 요소나 움직임들이 근대에 의해 억압되고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또 지금은 근대가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불안정해지면서 전근대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위용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변하지

53) 예컨대 “폴라니는 시장이 출현하기 이전의 역사에서 인간이 다시 사회의 다채로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제도들에 대한 권한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많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해리 W. 피어슨, 『편집자 서장』, 칼 폴라니, 이병천, 나익주 옮김, 『인간의 살림살이』, 후마니타스, 2017, 53면).

54) 톰슨은 18세기와 19세기를 단절적으로 보는 영국 ‘민중사’ 연구의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 “18세기 사회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산업혁명을 꾀하고 있었다는 관념을 배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래야만 18세기 사회를 하나의 사회 자체로서(as a society sui generis) 볼 수 있고, 민중들의 소요 속에서 19세기와 연결되는 패턴을 인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Thompson, Edward Palmer, 近藤 和彦(訳解説), 「一七九〇年以前のイギリスにおける社会運動」, 『思想』 663, 1979, 90~105면 참조).

않으면 전지구적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점점 심해지고 더욱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이 '특권적' 지위에서 군림하던 근대는 몰락해간 지 오래되었지만, 그 너머에 대한 상상력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이점에서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트랜스히스토리칼한 접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의 인용문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나 비서구의 경험은 서구의 경험과 다른 점이 많았다. 특히 서구에서는 근대에 들어서나 제도화하는 것들이 이미 전근대부터 다양한 전근대적 요소들과 특별한 마찰 없이, 또는 오래 동안 서로 조화롭게 공존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이해에서 새로운 개념이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연구 시각과 방법 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는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향후 근대중심주의나 트랜스히스토리칼이라는 개념을 활용한 연구들이 축적된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새로운 개념 혹은 담론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향후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적절한 활용과 그에 입각하여 역사상을 재구축하려는 노력 역시 동아시아 역사 분야의 연구에서 한 자락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해본다.

IV. 맺음말: HK+사업과 그 이후-새로운 도전들

학술원은 2018년 3월부터 HK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어 그 이전 10년 동안 쌓아온 HK사업의 성과를 심화시키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HK플러스 사업의 어젠다는 <열린 동아시아, 인문한국의 비전>이다. '열린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시공간과 분과 학문의 경계와 벽을 허무는 연구방법과 시각을 의미한다. 인간의 역사와 경험의 해석에 있어 가치론적으로 특권화된 중심과 시간성, 공간성, 가치의 설정이 위계화하고 경직된 질서를 낳아 극단적 갈등과 폭력으로 점철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성찰을 지향한 어젠다이다. 이것을 동아시아 역사 연구 속으로 좀 더 깊이 끌고 들어가 보면, 앞서 언급한 서구중심주의는 물론 근대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트랜스히스토리칼'이라는 연구 방법과도 닿아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의식을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사까지 포괄하는 역사전개 과정이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이해와 연결하여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또 그를 통해 어떠한 새로운 역사상을

구축할 것인가가 핵심적 과제일 것이다.

HK플러스 사업에는 근대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역사적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에 기초하여 인류 미래에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인문적 가치의 사회화를 추구한다는 점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근대 이후의 세계 상태를 근본적으로 재성찰할 때가 왔다. 이는 그 어느 곳과, 그 어느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와 삶도 세계와 인류를 바라보는 인문학적 통찰을 줄 수 있다는 중심과 패권 없는 보편주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방법·시각·비전으로서의 열린 동아시아는 고대에서 전근대, 근대 이후에 걸친 동아시아의 역사 경험과 삶에 대한 해석과 이론적 가공을 통해 인류 미래에 있어 새로운 지식·표상의 창출, 나아가 인문적 가치의 사회화라는 아젠다 연구목표의 요약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⁵⁵⁾

이러한 어젠다와 연구 목표는 동아시아학술원 개원 이후 20여 년간의 변화, 나아가 최근 대두되는 새로운 도전들과 과제들을 생각할 때 매우 적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원 이후 지금까지의 20년은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크고 작은 격동과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면 우선 글로벌화의 급격한 진행과 신자유주의 이념의 만연을 들 수 있다. 그에 따라 세계는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었고, 국가 간이나 국내 계층 간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였다. 또 알파고 (AlphaGo)와 ‘황우석의 줄기세포 사건’을 통해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생명공학(biotechnology) 문제가 구체적인 현실로 대두된 것도 모두 학술원 개원 이후의 일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류 전체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며, 인문학 연구 역시 새로운 과제와 도전들과 마주하게 되었다.⁵⁶⁾

거기에 더해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의 팬데믹(pandemic)은 기후변동과 환경 위기를 매우 구체적이고 절실한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두 차례의 금융위기나 불평등 심화가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 내부의 문제라면, AI와 생명공학, 코로나바

55)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18년 HK+사업 인문기초학문 연구계획서(유형2)」, 2018.2.5, 7면.

56) 김환석 외 21인, 이감문해력연구소(기획) 지음, 『21세기 사상의 최전선-전 지구적 공존을 위한 사유의 대전환』, 이성과감성, 2020.

이러스의 팬데믹 문제는 인류의 문명사적 존립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며, 인류의 삶의 방식,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무겁고 급박한 도전들이다. 과학기술,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문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곧 인간의 삶을 둘러싼 근원적 질문들을 본연의 과제로 삼는 인문학에 대한 발본적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⁵⁷⁾

또 그것은 그 동안 역사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사회과학이 근거해왔던 기반이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역사학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인식의 관건이 되는 현실과 인식론 모두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예컨대 포스트 담론들과 결부되어 들어온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 등이 수용되면서 인식론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데 이어 이제는 역사인식의 출발점이자 연구자가 딛고 서 있는 현실 역시 전대미문의 심각한 변화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역사에 대한 인식론과 연구자가 자각하는 현실은 상호규정적인 것이지만, 그 동안 역사인식을 지배해 왔던 ‘발전’의 도달점으로서의 ‘근대’라는 인식은 더 이상 설 땅이 없어졌고, 기후·환경문제나 불평등(세습자본주의) 등이 더욱 ‘발전’해나가는 현실은 그것이 결국 하나의 환상에 불과했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 같이 역사 인식 면에서 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새롭고 심각한 도전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인문학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문학의 사회적 위상은 더욱 추락하기만 하고 있다. 이는 과학 기술과 물질적 효율성에 대한 ‘신앙’, 무한 경쟁에 따른 자기 책임의 내면화를 심화해나간 신자유주의적 이념의 글로벌화와 같은 학문 외적인 환경의 변화 탓이 크다. 그러나 동시에 인문학 내부에서 이러한 위기를 정면으로 끌어안고 고민·성찰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⁵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지금, 앞서 언급한 근대중심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57) 글로벌화한 불평등과 빈곤, 부패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같은 글로벌한 차원의 기구와 대응이 구상되고 있다. 낸시 프레이저, 『지구화 시대의 정의』, 그린비, 2010;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정일준 옮김, 『부수적 피해-지구화 시대의 사회 불평등』, 민음사, 2013. 이외에 브랑코 밀라노비치 역시 글로벌화한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국민국가를 자연스러운 분석단위로 삼아온 방법론적 국가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브랑코 밀라노비치, 서정아,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30년 세계화가 남긴 빛과 그림자』, 21세기북스, 2017.

심화시키는 한편, 기후·환경 위기를 초래한 근대중심주의의 또 다른 얼굴인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성찰까지 포괄하는 역사연구, 인문학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학술원은 20년 동안 적지 않은 성과와 진전을 이루어냈지만, 여전히 처음 제시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심화시키고 체계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동안 연구 환경에는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변화들이 급격히 일어나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년도 간단치 않았지만, 앞으로 학술원을 기다리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어려움 도전들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에 대한 대응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이제라도 중지를 모으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투고일: 2020.11.10

심사일: 2020.11.29

게재확정일: 2020.12.18

58) 예컨대 한국은 두 번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호되게 겪었지만, 역사학 분야에서 신자유주의를 학문적 의제로 삼은 적이 없다.

참고문헌

- 한국고문서학회, 『동아시아 근세사회의 비교-신분·촌락·토지소유관계』, 해안, 2006
- 김시업·마인섭 편, 『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지향』,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 김환석 외 21인, 이감문해력연구소 (기획) 지음, 『21세기 사상의 최전선-전 지구적 공존을 위한 사유의 대전환』, 이성과감성, 2020
- 낸시 프레이저, 김원식 옮김, 『지구화 시대의 정의』, 그린비, 2010
-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 너머북스, 2013
- 미야지마 히로시, 배항섭 편,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동아시아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 너머북스, 2015
- 브랑코 밀라노비치, 서정아 옮김,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30년 세계화가 남긴 빛과 그림자』, 21세기북스, 2017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유교문화 교육·연구단 편(서중석·김경호 책임편집), 『[역사]새로운 질서를 향한 제국 질서의 해체, 청어람미디어, 2004
- 에드워드 사이드 지음,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7
- 와타나베 히로시, 박홍규 옮김, 『주자학과 근세일본사회』, 예문원, 2007
- 윤여일, 『동아시아 담론-1990~2000년대 한국사상계의 한 단면』, 돌베개, 2016
-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정일준 옮김, 『부수적 피해: 지구화 시대의 사회 불평등』, 민음사, 2013
- 진재교, 임경석, 이규수 외,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속의 한국(동아시아학술원총서 3)』,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4
- 하원호, 손병규, 송양섭, 정승진, 박진철, 배항섭, 한영규, 『한말 일제하 나주지역의 사회변동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
- 趙景達・須田努 編, 『比較史的にみた近世日本-「東アジア化」をめぐって』, 東京: 東京堂出版, 2011
- Hiroshi, Miyajima, Walraven, Boudewijn, How Shall We Study East Asia?, Paju: Jimoondang, 2017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제2단계 두뇌한국 21 사업』인문사회 분야 사업 신청서」, 2006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7년도 인문한국지원사업 인문분야 신청서(I)」, 2007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사업단, 「성균관대학교 HK사업단 기획연구 워크숍-동아시아에서 전근대/근대의 이분법 너머를 생각한다」, 2012.1.11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14년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학술회의-동아시아에서 21세기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2014.8.21.~22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18년 HK+사업 인문기초학문 연구계획서(유형2)」, 2018.2.5

- 고은미, 「글로벌 히스토리와 동아시아론-일본의 성과를 중심으로」, 배향섭·박소현·박이진 편, 『동아시아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동아시아교양총서 1』,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
- 기시모토 미오(岸本美緒), 洪成和 번역,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전통사회의 형성」, 『역사와 세계』 45, 효원사학회, 2014
- 김건태, 「대동문화연구원의 사학사적 위치」, 『大東文化研究』 6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 김선규, 「미국 및 일본에서 ‘傳統中國의 世界秩序’에 관한 연구사와 그 특징 비교」, 『역사문화연구』 3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9
- 김시덕, 「19세기라는 화두: 『19세기의 동아시아 1-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황해문화』 9, 2016
- 김시업, “동아시아학술원의 개원과 그 지향”,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개원 기념 동아시아학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지향-그 사상적 기저(학술회의 발표문)」, 2000.11.23~24일
- 류준필, 「분단체제론과 동아시아론」, 『아세아연구』 52(4),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09
- _____,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를 넘어서?!-<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동아시아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 『역사비평』 114, 역사비평사, 2016
- 배향섭, 「조선후기 토지소유 및 매매관습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 『한국사연구』 149, 2010
- _____, 「동아시아사 연구의 시각-서구·근대중심주의 비판과 극복」, 『역사비평』 109, 역사비평사, 2014
- _____, 「‘탈근대론’과 근대중심주의」, 『민족문화사연구』 62, 2016
- 오시택, 「새로운 학술시스템을 지향하는 동아시아학술원 20년」, 『대동문화연구』 본호
- 임경석, 「대동문화연구원의 학술사적 위치」, 『대동문화연구』 6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 임형택, 「“동아시아 정체성을 묻는 오늘의 시각” 총서를 기획하며」,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유교문화 교육·연구단 편(서중석·김경호 책임편집), 『[역사]새로운 질서를 향한 제국 질서의 해체, 청어람미디어, 2004
- 장인성,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동아시아 정체성-“동아시아의 새로운 상상”과 “국제사회로서의 동아시아”」, 『세계정치』 4,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5
- 진재교, 「한국문학 연구와 ‘대동문화연구원’-동아시아학으로의 연구지평 확대와 연구방법론의 창신」, 『대동문화연구』 6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 安本美緒, 「東アジア史のパラダイム轉換」, 『‘韓國併合’100年を問う』, 岩波書店, 2011

- 宮嶋博史, 「東アジア小農社會の形成」 『長期社會變動-アジアから考える(6)』, 東京大學出版會, 1994
- Bentley, Jerry H., "Beyond Modernocentrism: Toward Fresh Visions of the Global Past", in Victor H. Mair, ed., *Contact and Exchange in the Ancient World*, Honolulu, 2006
- Cho Young-hun, The History of East Asia as Newly Recognized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Historians, *Cross-Currents: 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Review E-Journal* No. 22 (March 2017) (<http://cross-currents.berkeley.edu/e-journal/issue-22>)
- Gills, Barry K. and Thompson, Wiliam R., "Globalizations, global histories and historical globalities", Barry K. Gills and Wiliam R. Thompson, ed., *Globalization and Global History*, New York, 2006
- Nezar AlSayyad and Ananya Roy, Medieval Modernity: On Citizenship and Urbanism in a Global Era, *Space and Polity*, Vol.10, No.1, 1~20, April 2006
- Osterhammel, Jürgen, "Globalization", Jerry H. Bentley ed., *The Oxford Handbook of World History*,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Thompson, Edward Palmer, 近藤 和彦 [譯解説], 「一七九〇年以前のイギリスにおける社會運動」(社會史<特集>), 『思想』 663, 1979

The Study of East Asian History as a Research Method and the Search for New History — Criticism of Moderno-centrism and a Trans-historical Approach

Bae, Hang-seob

This article is a review of research activities and research achievements carried out by the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since its foundation in March 2000. In the field of research, we focused on research on Korean history in the context of East Asian history or East Asia, and on research on "modern transition period."

In particular, the article focused on the concept or approach surrounding "History of East Asia" and the process of their change. As a result, "History of East Asia" was initially approached in the sense of "regional history", but gradually changed into a methodical concept. At the start of the HK project, efforts to build a new historical image based on a critical understanding of eurocentric history were visible. In the 2010s, a new awareness of the need to overcome eurocentrism and moderno-centrism was raised, and the need for a trans-historical approach was presented to solve the problem.

The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is working hard to carry out further research in the future based on the worries and achievements of the past 20 years. However, the situation is not easy. Although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and conditions are difficult, these days, various serious problems, such as AI, biotechnology, Pandemic of covid-19, climate change, have become very realistic. At this time, looking back on the 20 years of the institute will be an opportunity to rethink the direction of the Academy's research, which pursued new humanities through 'East Asian Studies' and left a significant mark on the study of Korean humanities in Korea. And I hope i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think the future of Korean humanities.

Key Words :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History of East Asia, eurocentrism, moderno-centrism, trans-historical